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정치와 법,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문화현상 탐구, 양적 연구방법, 의사결정, 데이터 요약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요즘에는 뉴스 기사를 열 때마다 도표와 마주친다. 그런데 수치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크림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이 많은 수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도표를 이용한 덕분에 사람들은 군대 의료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더욱 많은 수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수집된 수를 분석할 필요 또한 커졌다. 도표와 함께 ‘평균’도 흔히 사용되었다. 나이팅게일은 두툼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전쟁 기간 중 매달 평균 환자수를 계산했다.

평균은 16세기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개별 천체 측정값에는 예외 없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은 측정된 값의 총합을 측정된 개수로 나눈 평균 측정값을 일단의 개별 측정값 전체에 걸쳐 축적된 전체 오류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가 쟀 토성의 속도 측정값은 오류를 가지나 여러 과학자들이 쟀 토성 속도 측정값이나 한 명의 과학자가 쟀 여러 가지 측정값과 같이 축적된 전체 오류값은 평균 측정값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측정값이 측정값의 참값(예를 들어, 토성의 진짜 속도)에 대한 기대 가능한 최대 근접치라는 것은 후에 수학자 가우스의 유명한 증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세기에 케틀레는 평균을 천체가 아닌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케틀레는 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의문을 던졌고, 인간의 행동에는 특정 패턴이 존재해야 한다는 답안을 찾는 과정에서 **평균인(l'homme moyen)**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평균인이 참 인간이며 개개인이 오류에 해당한다. 즉 그는 평균적 인간이 인간의 보편적 원형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형의 결함 있는 모사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케틀레는 평균인의 개념을 키와 몸무게와 같은 계측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 예컨대 어느 개인이 환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틀레에게 평균인은 완벽 그 자체이자 자연이 꿈꾸는 이상이며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었다. 케틀레는 평균적 인간을 우러러 받든 반면, 평균에서 벗어난 불운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먹는 혐오감을 가졌다.

<나>

영국 과학자 골턴과 관련한 일화가 있다. 1907년 어느 봄날 골턴은 항구도시 폴리머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황소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도축했을 때 손질된 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를 목격하였다. 소에 관한 천차만별의 지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6펜스를 내고 산 티켓에 이름과 주소, 숫자(무게)를 적어 냈고, 그중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적어 낸 사람이 상금을 탈 수 있었다. 골턴은 소 무게 맞추기 게임에 참가한 집단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그 티켓 787개를 손에 넣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무게를 너무 크거나 작게 추정했다고 단정했고, 중앙값인 547kg을 민주적 결정의 결과값으로 선택했다. 실제 손질된 고기의 무게는 543kg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골턴이 제시한 대중의 선택은 정답에 매우 가까웠다. 골턴은 이 경험을 “인민의 목소리(Vox Populi)”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하였는데, 오늘날 그의 발견은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로 알려져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또는 연속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평균(average)’이라는 통계량(statistics)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의 대푯값으로 사용된다. 평균은 일상에서 평균 임금, 평균 시험 점수, 평균 온도 등과 같이 자주 쓰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 평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mean),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median), 가장 흔한 값인 최빈값(mode)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설정의 기준, 즉 중심 경향값(central tendency)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평균이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등장할 때, 이것을 산술평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종종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임금은 산술평균인데 반해 지방정부는 평균 임금을 중앙값으로 따로 보고하는데, 여기서 ‘평균 소득’, 즉 산술평균과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 즉 중앙값을 구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영국 정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중앙값으로 보고하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 ‘평균 주택 가격’이라서 혼란이 발생한다. ‘평균-주택 가격인가 아니면 평균 주택-가격인가?’ 부호의 위치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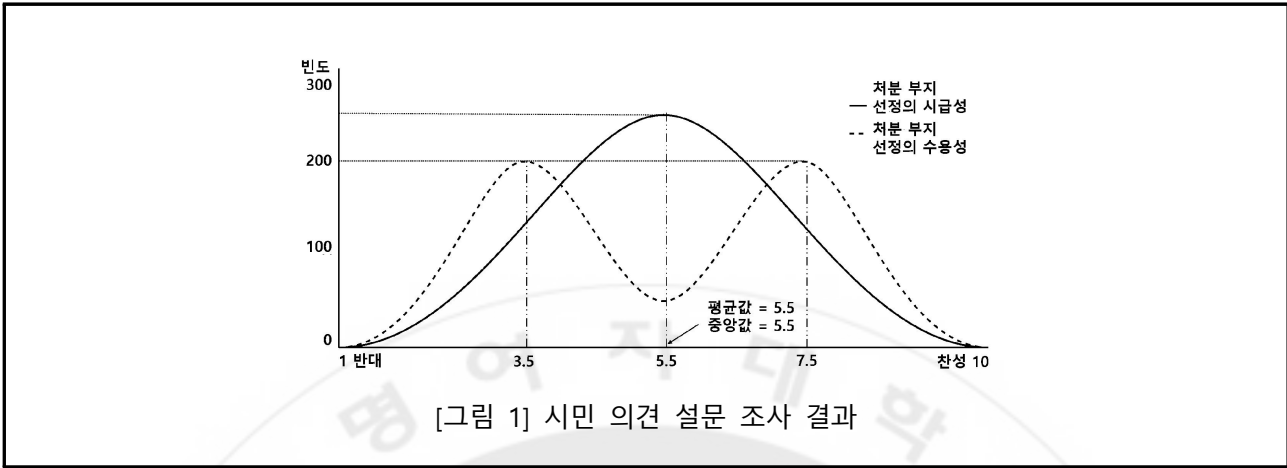
<다>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신장을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전형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중앙값, 즉 50%의 여성보다 크고 나머지 50%의 여성보다 작은 여성의 키)는 약 165cm이다. 평균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평균값, 즉 모든 여성들의 키를 더해 총 여성 수로 나눈 값)도 약 165cm이다. 이 데이터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은 같으며, 여성의 키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칭적인 형태로 고르게 퍼져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른바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앙값과 평균값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분포 상태에 따라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소득별 비율을 요약해 보여 주는 소득 분포 그래프는 종 모양의 대칭적 형태보다는 오른쪽 ‘꼬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모양을 ‘두꺼운 꼬리(fat-tailed)’ 분포라고 한다. 두꺼운 꼬리 분포는 극단적인 쓸림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 평균 소득은 중간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식당 고객의 시간별 방문 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는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peak), 즉 두 개의 최빈값을 가지는 ‘이봉(bi-modal)’ 분포로 나타난다.

다음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상의 A국가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이 긴급하다는 ‘시급성’과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본인 거주 지역에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A국가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4,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두 개 사안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를 질문하였고, 설문 참여자에게 10점(1=“절대 반대”, 10=“절대 찬성”)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의 소수점 단위까지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은 5.5점으로 동일했다. 상세한 응답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응답을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는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수용성을 묻는 질문 각각에 5.5점으로 응답하였다.



- 1-1.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30자)
- 1-2. A국가 정부가 시민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 <다>, [그림 1]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현상의 참값(true value)을 파악하고 개별 관찰값과 참값 간 오차(deviance)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평균의 일반적인 의미와 데이터 특성에 따른 평균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가>는 사회적 현상을 숫자로 측정하고 이를 요약하는 평균 측정법이 전체 중 일부에 대한 복수의 측정과 측정값의 평균값, 즉 반복적인 표본측정과 표본의 산술평균의 산술평균을 통해 계산한 평균값이 전체, 즉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대푯값으로서의 산술평균이 집단의 특성을 통해 개인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평균을 이상형 또는 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골턴의 일화를 통해 사회적 현상의 참값을 알지 못할 때 다수의 측정을 통해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고, 중앙값이 측정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평균(average)은 산술평균(mean), 중앙값(mode), 최빈값(median)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미디어 등에서의 평균 개념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는 데이터의 분포 특성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값, 최빈값 등이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가>의 평균 측정값(즉 산술평균)과 <나>의 대중의 지혜(즉 중앙값)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 능력과 <다>의 가상의 사례와 [그림 1]을 통해 요약하여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이 정책 판단에 활용 가능한지를 묻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학생들은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을 통해 사실 판단 능력을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장의 논리적 구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답안에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기준 1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관련 제시문 <가>, <나>
	성취기준 2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나>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성취기준 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관련 제시문 <나>, <다>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관련 제시문 <가>, <나>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기준 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데이비드 스피켈할터	웅진지식하우스	2020	49-86	제시문 <가>	○
	위험한 숫자들	사너 블라우	더 퀘스트	2022	27-57	제시문 <가>	○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21세기북스	2021	41-67	제시문 <가>	○
	Vox Populi	Francis Galton	Nature	1907	450-451	제시문 <나>	○
	대중의 지혜	제임스 서로위키	랜덤하우스 중앙	2004	8-11	제시문 <나>	○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부키	2017	69-81	제시문 <다>	○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	비교사법	2015	103-108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데이비드 스피켈할터. (2020).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웅진지식하우스. 49-86쪽.
- 사너 블라우. (2022). 『위험한 숫자들』. 더 퀘스트. 27-57쪽.
- 토드 로즈. (2021). 『평균의 종말』. 21세기북스. 41-67쪽.

<가>는 많은 수의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과 그 적용을 산술평균(mean)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평균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과 함께 측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가우스 등에 따르면 측정값의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최대 근접치로서 산술평균은 의미를 가진다. 케틀레는 참값의 추정치인 평균 측정값을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인간의 행동의 특정 패턴을 평균 측정값을 통해 찾으려 하였다. 더욱이, 케틀레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평균값과 거리를 가진 개별 관찰값으로 오류로 간주하고 평균에 근접한 상황에 대한 찬사와 일탈한 상황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였다.

제시문 <나>

- Galton, Francis. (1907). Vox Populi. 『Nature』. 450-451쪽.
- 제임스 서로위키. (2004). 『대중의 지혜』. 랜덤하우스중앙. 8-11쪽.

<나>는 도축된 소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를 목격한 골턴의 일화를 사례로 하여, 참값, 즉 소고기 무게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수의 관찰 또는 측정을 활용하는 것의 유용성과 이때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으로서 중앙값이 가지는 도구적 의미를 소개한다. 특히, 골턴은 787개의 측정치의 중앙값이 실제 참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 표현과 그 중심적인 의견이 실제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균(average)이 다소 모호한 의미를 가지며, 산술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의 평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는 기준점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 집단의 특성을 요약하는 대푯값의 기준 위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평균값과 중앙값이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제시문 <다>

- 윌리엄 맥어스킬. (2017). 『냉정한 이타주의자』. 부키. 69-81쪽.
- 권영준. (2015).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비교사법』. 103-108쪽.
- [그림 1]: 가상 사례에서의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포

<다>는 3개의 데이터, 즉 북아메리카 여성의 신장(키), 세계 소득, 식당 방문 고객의 분포를 사례로 평균값과 중앙값의 개념을 구분하고,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한 정규분포와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정규분포, 즉 두꺼운 꼬리 분포와 이봉 분포를 소개한다. <다>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를 요약하는 평균의 다양한 해석, 즉 3개의 대푯값인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한 정규분포(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와 평균값과 중앙값은 동일하지만 최빈값은 상이한 비정규분포, 즉 이봉분포(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의 수용성)를 제시문 내의 본문과 [그림 1]을 통해서 제시한다. 그리고, 평균인으로서의 시민 ㉔의 응답이 개별 관찰값으로 제시되었다.

■ 논제의 구성

1.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30자)

(<가>의 산술평균과 평균인)

- <가>의 산술평균은 다수의 관찰치를 합한 값을 관찰 개수로 나눈 값이며, 데이터를 요약한 대푯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값을 알기 위해 평균 측정값을 사용하며, 측정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즉 평균값 계산에 필요한 측정수가 증가할수록 산술평균의 평균측정값은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근접치로 기능한다.
- 산술평균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숫자로 요약하며, 개별 관찰값의 오차를 최소화한 값이다. 케틀레는 자연 현상인 천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현상인 인간 행동에도 평균측정값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 케틀레는 평균인을 평균에 근접하여 오차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고, 평균인 이상적인 원형이며 개별 관찰값인 인간을 평균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근접할수록 이상적인 존재로 멀어질수록 혐오스런 존재로 받아들였다.

(<나>의 중앙값과 대중의 지혜)

- <나>의 중앙값은 다수의 관찰치를 수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가운데 위치에 있는 수치이며, 데이터를 요약한 대푯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값을 알기 위해 중앙값을 사용하며 관찰값들의 중간 위치, 즉 50%에 위치한 관찰값은 참값과 비교하여 큰 차이(오차)를 가지지 않는다.
- 오류(error)는 오차(deviance)의 의미를 포함하며, 중앙값은 너무 크거나 작은 오차를 제거한 가장 오차가 적은 숫자로 활용될 수 있다.
- 골턴은 천차만별의 사람들, 즉 소고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다양하게 가진 사람들의 경험의 중앙값이 실제 소고기의 무게와 근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대중의 지혜, 즉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 정중앙의 의견이 참값과 일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발견하였다.
- 평균(average)은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푯값으로서 이 평균값은 데이터가 분포한 형태의 위치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이 값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효과가 있어, 이들 평균값은 중심 경향값(central tendency)로 불리기도 한다.
- 평균은 각 데이터의 특성과 보여 주고자 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특히 산술평균과 중앙값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2. A국가 정부가 시민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 <다>, [그림 1]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600±60자)

(<다>의 데이터 분포와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위치 변화)

- <다>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따라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데이터가 하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분포하는 경우에는 산술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동일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왼쪽으로 치우쳐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거나 2개의 봉우리를 가진 분포를 보일 경우 산술평균이 중앙값이나 최빈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그림 1]은 <다>의 가상 사례에서의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포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빈도수를 기준으로 최빈값의 위치가 상이하고,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술평균과 중앙값이 일치함을 보여 준다.
- 이후 <다>는 정책 결정에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평균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 의견을 다양한 평균의 개념을 활용해 추정하는 접근으로 비유하고, 그 평균인을 상징하는 시민 ㉠의 응답 결과를 제시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참값의 근접치로서의 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p> <p>① 참값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근접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근접값이 임의의 개별적인 관찰값이 아니라 다수의 관찰값을 요약한 특정값으로서의 평균값이다.</p> <p>【제시문 <가>의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산술평균'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p> <p>② 평균인은 참값으로부터의 총오차를 최소화하는, 즉 측정값의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 방식의 평균 측정값을 가진 사람이다.</p> <p>③ 참값에 대한 기대 가능한 근접치로서 평균인은 오차가 없는 이상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평균인의 개념은 오차에 대해 부정적이다.</p> <p>【제시문 <나>의 참값의 근접치로서의 '중앙값'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설명】</p> <p>④ 대중의 지혜는 참값으로부터 오차가 큰 관찰값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한으로 가진 중앙값을 발견하는 과정이다.</p> <p>⑤ 숫자를 크기에 따라 정렬하여 산출하는 중앙값은 관찰값이 차지한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산출되며, 참값과의 오차를 최소한 근접치로서의 성격보다는 참값을 보다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가능성을 가진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③,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정부가 개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의 의의와 문제점 설명】</p> <p>①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에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나>의 '대중의 지혜'에서의 의사결정과 연계하고, 여기서 '평균'이 가지는 다의미성을 '산술평균'과 '중앙값'으로 구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와 같은 표본추출의 방법이나 설문 조사의 타당성 등의 연구방법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논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므로 감점한다. <p>② 정책에 대한 시민 전체의 관점과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에 차이(오차 또는 오류 등)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 의견의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평균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p> <p>【제시문 <다>의 본문과 [그림 1]의 내용에 대한 분석】</p> <p>③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과 시민 ㉠의 관점의 일치 여부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림 1]은 시민 ㉠의 응답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민 다수의 의견과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기준에서 동일하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시민 소수의 의견에 해당함을 설명한다.</p> <p>④ 더 나아가 [그림 1]은 평균적인 시민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중립적인 의견으로 집중되어 있고 '수용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평균을 중심으로, 즉 2개의 대비되는 의견을 가진 하위 집단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각 집단은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p> <p>【데이터 분포를 활용해 시민 ㉠의 의견 활용의 타당성을 평가】</p> <p>⑤ 시민 ㉠은 사안에 대해서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을 대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술평균이나 중앙값에 해당하는 시민 ㉠의 의견을 시민 전체의 의견에 대한 최대 근접치로 사용하는 것은 '시급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수용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푯값(즉 평균)과의 일치 여부가 아닌 데이터의 분포 또는 퍼짐의 정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답안도 가능하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지만 논리성이 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고, ⑤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가>와 <나> 모두 참값을 알아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의 활용을 이야기한다. <가>의 '평균인'은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된 평균 측정값에 해당하는 인간이며, 총오류를 최소화한 근접치로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다. <나>의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을 통해 도출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며, 중앙에 위치한 의견이 참값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결정임을 보여 준다. 이들은 참값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데이터를 요약한 수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평균인은 산술평균 그리고 대중의 지혜는 중앙값으로 그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가진다. (316자)

1-2.

A국 정부는 평균적인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며, 시민 ㉠을 평균적인 시민으로 보는 것은 평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문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평균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보여 주고 싶은 현상에 따라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두 개의 정책사안, 즉 '시급성'과 '수용성'에 대한 시민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에 대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는 특히 데이터 분포 형태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값의 일치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이 때로는 중심적인 경향을 보여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시민 ㉠의 응답은 두 개 사안 모두에 대해서 시민 전체 의견의 평균값과 중앙값과 일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부의 결정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타당한 결정이면서 민주적인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시급성에 대해서 시민 ㉠은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의 모든 평균을 기준으로 시민 전체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지만, 수용성에 대해서는 최빈값에서 시민 전체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용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이봉으로 분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 ㉠을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균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24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소비, 욕망, 경쟁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명품’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70%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19%는 브랜드의 전통을 떠올린다. 무조건 값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명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명품을 고급스럽고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 추산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미국의 280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인 전체의 명품 소비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1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치 문화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매장은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이고 특급 호텔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호캉스’를 하는 투숙객으로 붐빈다. 몇 년씩 적금을 부어 고급 브랜드 시계나 보석을 사는 행태는 이미 일반화됐다. 명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치와 허영이 개인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은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2%만이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명품을 통한 과시를 긍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의 과시가 용인되는 것은 ‘돈 많은 게 최고’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력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명품 소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된다. 이에 대해 외신은 “한국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난다.”면서, “한국에서는 명품 아이템이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 상황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명품 구매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욕망의 총족이라는 점에 있어 평등해진 사회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그나마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명품을 과시한다면 결국 남들과의 차이는 다시 소멸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에서 삶은 명품 소비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더욱 궁핍해진다.

<나>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어떤 대상에 대한 어느 한 주체의 관계로 기술한다. 그리고 욕망의 근원을 욕망 주체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욕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한 대상을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라르는 욕망을 ‘매개자’라고 하는 제3자

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관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계는 욕망의 모방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돈키호테가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은연중에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 다시 말해 모방 욕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라르는 모방 욕망의 기본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이 그것이다. 욕망의 이러한 속성은 흔히 실제적인 사용 가치가 없는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 게다가 없는 가치를 부여하면서까지 그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소유를 통해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에서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면서, 이 욕망이 개인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주체가 모델을 자신과는 다른 우월자로 공공연히 인정하고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지 않을 경우, 주체의 욕망은 강렬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갈등도 격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체가 매개자와의 차이를 부정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델은 같은 대상을 욕망하는 경쟁자가 되며 이 경쟁은 집단 전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모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되는 순간 주체의 욕망은 배가되지만, 그 주체 역시 모델의 적대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욕망하는 개인 간의 관계가 평등한 집단일수록 왜 갈등과 폭력이 커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욕망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루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욕망은 욕구와 구분된다.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이고 본능적 필요에 대한 바람이며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욕망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할 때 그 스테이크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거나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제한되고 억압된다. 억압된 욕망은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많이 의식한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직업이나 외양이 어떻게 판단될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을 그렇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정말 외부의 다른 사람일까? 라캉에 따르면, 타자란 물리적으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타자란 나와는 다른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안에서 자기로 환원시킬 수 없는 ‘낯선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중심에는 항상 나르시시즘이 놓인다. 라캉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실은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말하듯이, 이 나르시시즘 때문에 욕망은 자기실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어려서 물질적 궁핍함 속에서 자란 사람이 유독 과시 소비에 몰입한다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더욱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면의 타자가 클수록 욕망은 강렬해진다. 그리고 그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자아는 소외된다. 욕망이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2-1. <가>에서 서술된 '명품' 소비 현상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가 각각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일차적으로 수험생의 독해 능력을 묻는다. 이 능력은 제시된 예문을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에 따라 요약하고 비교하는 것을 통해 평가한다. 특히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데, 이 물음은 각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통해 평가한다.

문항 2-1은 하나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통해 해석하라고 함으로써 요약된 내용을 유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 2-2는 서술된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음으로써 요약하는 능력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본 문항은 수험생이 두 내용 간에 함축된 공통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하고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5-02] 인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 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나>, <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4.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매일경제			2023.8.6		제시문 <가>	○
르네 지라르	김모세	살림	2008	52-54	제시문 <나>	
자료	이광모				제시문 <다>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김모세, 《르네 지라르》, 살림, 2008, 52~54쪽.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명품 소비 현상을 서술한다. 명품 소비 현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부추겨진다. 그 결과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을 이루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임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매일경제, 2023.08.06

제시문 <나>는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주체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빌려온 감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욕망이란 항상 타인의 욕망에 대한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다. 욕망하는 주체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이유 때문이다. 이때 핵심은

모방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이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질 때, 주체와 모델은 같은 대상을 놓고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되며, 그 경쟁 관계는 집단 전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제시문 <다>: 이광모, 2024

제시문 <다>도 욕망이란 욕구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의 근원이 타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타인이란 주체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으로 환원할 수 없는 낯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의 근원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에 놓이게 되며, 그런 한 욕망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욕망은 이런 까닭에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욕망하는 이유는 자아를 실현하는데 놓인다. 이때 내면의 무의식적 자아와 의식적 자아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격렬해지며 자아는 소외된다.

■ 논제의 구성

2-1. <가>에서 서술된 '명품' 소비 현상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300±30자)

문항 1은 제시문 <가>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요약된 내용을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문 <가>를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명품 소비 현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 즉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소멸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점은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2-2. <나>와 <다>가 각각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60자)

문항 2는 욕망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두 제시문을 독해하고, 두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600자로 서술하기를 요구한다.

제시문 <나>는 주체의 욕망이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욕망은 항상 사회 속에서 타인을 전제로 한다. 주체가 이렇게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는 스스로 모델과 같이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놓인다. 이때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은 격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진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가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

-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한다.

[차이점]

- 욕망의 근원은 제시문 <나>에 있어서는 타인이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주체 자신의 내면이다.
-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이유가 뛰어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타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회는 경쟁적으로 되는 반면, 제시문<다>에서는 욕망하는 자아와 자신 안의 무의식적 자아(타인)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자기 소외는 심해진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가>가 서술하는 명품 소비 현상을 제시문 <나>에 근거해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품 소비의 현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은 욕망의 모방적 성격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②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비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 즉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욕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③ 우리 사회가 누구든 돈만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소멸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④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서로 과시 소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만큼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점은 모델과 주체 간의 차이가 소멸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분명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분명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한 개만 충족하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나>와 <다>가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야 한다.】</p> <p>[공통점]</p> <p>①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한다.</p> <p>[차이점]</p> <p>① 욕망의 근원은 제시문 <나>에 있어서는 타인이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주체 자신의 내면이다.</p> <p>②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이유가 뛰어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p> <p>③ 제시문 <나>에서는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타인) 간의 차이가 소멸될수록 욕망의 강도는 강해지고 사회는 경쟁적으로 되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욕망하는 자아와 자신 안의 무의식적 자아(타인)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욕망은 강렬해지고 자기 소외는 심해진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했으나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2등급
	①은 충족하였으나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은 충족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며,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4등급
	①은 충족하였으나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하면서, 논리적 연결이 불충분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2-1.

한국의 명품 소비는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은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모방 욕망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때 명품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곧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민까지 명품 소비에 합세함으로써 삶이 더욱 궁핍해진다는 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간의 차이가 소멸될 때 경쟁은 격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된다는 주장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324자)

2-2.

제시문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욕망이란 주체의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타인이 누구인가인데, 제시문 <나>는 타인이란 주체 밖의 다른 주체라고 말하는 반면, <다>는 내 안에 자기로 환원되지 않는 낯선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욕망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그 욕망의 근원은 다르게 이해된다. 즉 <나>에 있어 욕망의 기원은 주체 밖에 놓이는 반면, <다>는 주체와 내 안의 무의식적 자아 간의 간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유 또한 다르게 만든다. <나>에서 그 이유는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방하려는 모델의 존재 가치로 상승시키려는 데 있다면, <다>에서는 욕망이란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욕망하는 주체의 자기 발견에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욕망의 강도 또한 다르게 이해된다. <나>에서는 주체와 타인, 즉 모델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의 욕망은 그 강도가 약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적어지는 반면, <다>의 욕망은 내 안의 타자와 욕망하는 주체 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강해지며, 주체의 소외는 심해지게 된다. (612자)

